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보존회 동경지부 지부장 김순자 씨의 '화초별감'.

제2회 韓國名作舞大祭典
 대가들의 춤사위로
 살아난 '우리춤' 100년'

우리춤의 올바른 보존 및 계승이라는 취지 아래 지난 4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제2회 한국 명작무 대제전은 100년의 우리춤을 재조명하고, 한국 무용의 대가들의 춤사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쉽지 않은 기회였다. 지난 4월 7~8일 양일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는 우리나라 한국무용의 새 장을 연 강선영, 김숙자, 김천홍, 이매방, 한영숙 등의 주옥같은 레퍼토리뿐 아니라 최현, 송범, 국수호, 김말애 등의 창작무용까지 우리춤 100년의 대서사시가 펼쳐졌다.



1 국수호 디딤무용단의 '춘살', 2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보유자 김종섭의 '처용무' 3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보유자 이흥구의 '무산향'.



1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3호 경기검무 보유자 김근희의 '경기검무'. 2 김호은 카시아무용단의 '한국의 인상'. 3 국립국악원무용단의 '사풍점감'.

우리 춤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한국명작무대제전'에서는 처용무, 승무, 살풀이춤, 장고춤 등 우리춤 30편이 무대에 올랐다. 춤꾼의 버선발이 그려낸 아름다운 선, 흰 눈 위에 떨어진 동백 꽃잎처럼 다가왔던 흰 장삼과 어

깨에 두른 가사 등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몸짓 하나하나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 준 시간이었다. 이번 무대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특별한 무대로 관심을 끌었다.



4



6

4 충남도립국악단 지도위원 진유림이 선보인 '허튼법고춤'. 5 손병우 예원예술대학교 교수가 선보인 '생령의 신음'. 6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도살풀이춤 전수조교 양길순의 '도살풀이춤'. 도살풀이춤은 판소리꾼이 소리를 하는 중간에 발림을 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대목이 있고 긴 수건을 가지고 추기 때문에 수건춤의 동작 폭이 크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보유자인 이흥구 씨는 궁중무용인 무산향을 선보였고,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전수조교인 임이조 씨는 이매방류의 승무를 무대에 펼쳐놓았다. '무산향'은 궁중무용의 전성기인 조선조 순조 때 효명세자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만든 독무로 장중하면서도 활발한 느낌을 준다. 반면 이매방의 '승무'는 유려하게 흐르는 춤의 조형적 선, 고고하고 단아한 정중동의 춤사위로 인간의 희열과 인욕의 세계를 그려낸 춤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도살풀이춤의 명무 고 김숙자 선생에게 사사한 양길순 씨, 처용무 보유자 김종섭 등 국보급 무용가들의 화려한 명작들도 관객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경기도 당곳에 나오는 도살풀이 장단에 맞춰 추는 '도살풀이춤'은 살풀이춤에서 쓰는 수건보다 두 배 정도 긴 수건을 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립무용단 조흥동 단장은 일반적인 궁중무와 달리 민

속적 특색인 계급사회의 시대상을 날카롭게 풍자한 '한량무'를, 청주대 박재희 교수(무용과)는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는 한영속류 태평무를, 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 태평무보존회 동경지부 지부장 김순자 씨가 '화초별감'을, 충남도립국악단 지도위원 진유림 씨가 '허튼법고춤'으로 관객과 소통했다. 한국 무용의 새 장을 연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예능보유자 강선영, 한영속(1920~1989) 등의 레퍼토리는 물론 최현(1929~2002), 송범(1926~2007), 국수호, 김말애 등 창작무용까지 우리 춤 100년의 역사가 펼쳐졌다.

인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장은 "관객은 한 자리에서 쉽사리 만나기 어려운 한국무용의 대가들이 모여 우리춤의 대서사시를 펼쳐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무용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Y



5